



Beyond Fair & Exhibition
Building Enhanced Family Experiences, BeFe



48th BeFe BABYFAIR

— PRESS KIT —

[자료 문의]

(주) 베페 김희진 과장 / ☎ 010-4725-8979 / ctoam05@befe.co.kr



임신 출산 육아의 모든 것이 펼쳐지는 베페 유니버스 세상

제48회 베페 베이비페어 개최... '베페 유니버스'에서 함께해요

- 오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 국내 최대 규모, 350여 브랜드 참가
- '베페 유니버스'를 테마로 다양한 품목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전시 구성
- 임신부, 육아맘을 위한 '스페셜 프리미엄 육아팩' 선물 증정 이벤트 눈길

(주)베페가 주최하는 국내 대표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제48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서울 코엑스 A/B홀에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지난 2000년 시작된 베페 베이비페어는 아시아 최초, 국내 최대 규모의 유아용품 전시회로 국내외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관련 170개사 350여 개의 다양하고 우수한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외출용품 부문의 잉글레시나/미마/실버크로스, 출산용품 부문의 더블하트/밤부베/마더케이/맘스데이, 홈리빙 부문의 일룸/한샘/크림하우스/알집매트, 헬스케어 부문의 셀트리/차바이오텍, 교육 부문의 프리벨/키즈에이원/잉글리시에그/핀덴 등 국내 유아용품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브랜드와 신규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한다. 특별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영유아 호흡기 세균·바이러스(RSV) 예방을 위한 '우리 아기 RSV 예방 첫걸음' 캠페인이 협찬사로 참여한다. 전시장 내 베이비룸 데코존에 마련되는 '아기방 소름'에서는 최신 아기방 인테리어 트렌드를 제시하고 전시된 물품들은 매일 전시장 이벤트홀에서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아용품 업계의 트렌드 리더 역할을 하는 인스타 유명 브랜드를 모아 놓은 '베페 SNS 마켓'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매회 육아 트렌드를 반영한 전시 테마로 화제가 됐던 베페는 이번 48회에서 임신, 출산, 육아의 모든 것은 베페로 통한다는 의미인 '베페 유니버스'를 테마로 다양한 품목의 신제품과 서비스들로 전시회를 구성했다. '베페 유니버스 컨셉존'은 임신부와 육아맘이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임신부 전용 라운지'에는 임신부를 위한 식음료/출산지원정책 상담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전시장 내 이벤트홀에서는 '우리가족 여름루틴 - 속 편한 하루'라는 주제로 장 건강 및 아기면역과 관련된 내용의 케이클래스가 목금 양일간 개최된다. 또한 건강한 임신/행복한 분만, 아기수면 교육, 영유아 발달 및 응급처치, 아기 신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및 강좌가 준비되고 참석자들을 위한 푸집한 경품도 증정된다.

임신부와 육아맘들을 위한 대대적인 '육아지원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참가업체들의 우수한 친환경 제품들로 구성된 '스페셜 프리미엄 육아팩'을 전시 4일간 선착순 2천명에게 증정하고, 베페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100만원 태교여행 상품권, 유모차/카시트 10종을 포함한 총 27종의 무료 육아템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한편 현장구매 고객들을 위한 혜택으로 전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베페 상품권을 행사 웹사이트에서 75% 할인된 금액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주)베페 관계자는 "이번 48회 베페 전시회는 관람객들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하고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육아의 즐

거움을 만끽하고 푸짐한 선물 혜택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끝.

행 사 개 요

48th BeFe BABYFAIR 8.14 - 8.17 coex

- **일시** : 2025년 8월 14일(목)~8월 17일(일) / 10:00~ 18:00
- **장소** : 삼성동 코엑스 Hall A/B
- **규모** : 국내외 170개사 350브랜드 650부스 (14,733㎡)
- **주최** : (주)베페
- **전시품목**

태교용품	태담, 태교관련 도서, 음반, 영상콘텐츠
임산부용품	임부복 및 속옷, 피부 보호제, 보조식품, 임산부의료기기
임산부 서비스	산모교육프로그램,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건강관리서비스
출산용품	의류, 침구, 영유아 전용 스킨케어 및 기타용품
영유아식품	분유, 이유식, 생수, 음료수, 보조식품
영유아 서비스	제대혈은행, 스튜디오, 생활가전, 신생아보험, 베이비시터, 기념소품
안전용품	유모차, 캐리어, 카시트, 보행기, 안전용품, 아기방꾸미기, 영유아 가구
교육콘텐츠	지능개발용품,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놀이교구, 코딩완구
스마트&리빙	IP콘텐츠, 스마트 유아기기, 친환경 리빙제품

(주)베페(BeFe) 기업소개

(주)베페는 1999년 7월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개최한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를 포함 다양한 전시/ 컨벤션 기획 및 운영, 온라인 비즈니스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시/ 컨벤션 전문기업이다. 2011년 6월에는 임신 출산 육아 산업과 문화, 교육 사업 등을 아우르는 임신 출산육아 토틸 브랜드로 진화하기 위해 '베페'라는 통합 브랜드를 발표하고 사명도 (주)베페로 변경했다.



(주)베페는 기존 전시회인 베페 베이비페어를 기반으로 '온라인 베페', '모바일 베페', '베페TV' 등 전시와 온라인 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페 맘스쿨', '태교 음악회' 등을 통한 임신 출산 육아 전반의 문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임신 출산 육아의 토틸 마케팅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다.

베페(BeFe)란?



베페는 'Beyond Fair & Exhibition', 'Building Enhanced Family Experiences'의 줄임말로 (주)베페의 고유 사명이자 상표권을 가진 브랜드명이다. (주)베페는 베페 베이비페어 전시회를 넘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기업으로 점차 발전해 가고 있다.

(주)베페는 '베페 베이비페어'의 주최사로 2000년 8월 1회 전시회를 시작으로 2025년 8월까지 총 48회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제 17회 이후부터는 매회 평균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국내 최고, 최대 규모 전시회로 성장해 왔다. 베페 베이비페어는 국내 퍼블릭 전시회 중에서 최초로 국제 전시 협회인 UFI (The Global Associ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 국제 인증을 획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한국 전시산업 발전 대상' 우수 브랜드 전시회 부문에서도 최우수상 3회, 대상 1회를 수상했다. 2018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아시아전시컨벤션협회연맹(AFECA)이 수여하는 'AFECA 어워즈 2018'에서 소비재전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주)베페를 이끌고 있는 이근표 대표는 지난 2009년 국내 전시산업 선진화에 공적이 현저한 모범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 1회 전시산업발전유공자 포상'에서 공로상 수상에 이어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전시업계 대표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러한 성과는 베페 베이비페어의 성공을 기반으로 베이비 포털 사이트, 임산부 교육까지 그 분야를 확장시키며 육아산업에 대한 꿈

임없는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베페의 집념이 이뤄낸 성과다. 1990년부터 10년간 전자신문사에 근무하면서 탁월한 기획력으로 각종 IT전시회, 컨퍼런스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해온 이근표 대표. 그는 1999년 ㈜베페를 설립, 베페 베이비페어를 기획해 참신한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으로 전시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베페는 연중 언제 어디서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를 얻고 관련 상품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2014 웹사이트 Award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전시사업 및 웹 비즈니스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어 2014년 7월에는 인터넷 방송 '베페TV' 개국을 비롯, 유튜브 채널 '베페튜브' 운영까지 전시와 온라인을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로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주)베페(BeFe)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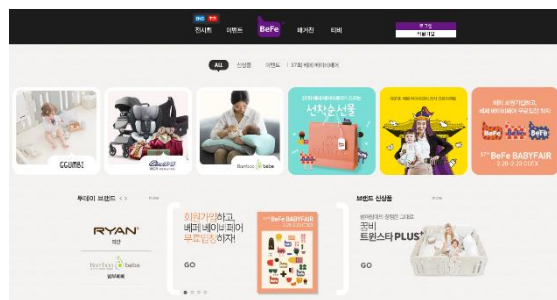
- 전시, 컨벤션 관련 종합 서비스로 국내 전시산업의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
- 임신, 출산, 육아용품 멀티 플랫폼 '베페 온라인', '베페 모바일' 운영
- 예비맘 위한 교육 프로그램 '베페 맘스쿨', '태교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 활발

국내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의 새 역사 쓰다

(주)베페(대표 이근표, www.befe.co.kr)는 1999년 7월 설립되어 다양한 전시회 주최, 전시·컨벤션 기획 및 운영, 온라인 비즈니스 등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시·컨벤션 전문기업이다. (주)베페는 2000년부터 '베페 베이비페어'를 46회에 걸쳐 개최하며 이제는 매회 평균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국내 최고·최대 규모 전시회로 성장시켜 왔다. 이처럼 우수한 전시 운영 노하우와 고객 서비스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한국 전시산업 발전 대상' 우수브랜드전시회 부문에서 2008년, 2009년, 2011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018년 대상 수상까지 국내 전시산업의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년 2월에는 국내 퍼블릭 전시회 중에서 최초로 국제 전시 협회인 UFI (The Global Associ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의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2018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아시아전시컨벤션협회연맹(AFECA)이 수여하는 'AFECA 어워즈 2018'에서 소비재전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임신출산육아 멀티 플랫폼, 베페 웹사이트 운영

베페는 지난 2007년 8월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문 플랫폼인 베페 온라인 사이트를 오픈 했다. 전시회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관련 기업과 관람객들이 1년 365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육아용품 정보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고, 육아용품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특히 베페 홈페이지에서 베페 및 브랜드 이벤트, 제품사용 후기, 베페 기프트 등 소비자들이 육아용품 구매 전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정보 제공 및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이처럼 다양한 창구를 통해 소비자들은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베페 베이비페어 참가기업은 전시를 통한 사전/사후 마케팅이 가능해지면서 참가 효과가 점차 극대화됐다. 주최사인 베페는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여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매년 베페 웹사이트 회원 수 및 방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누적 회원 140만여 명의 온라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참가 기업들의 홍보 효과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베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런칭

베페 베이비페어 방문자 중 모바일 회원으로 입장한 방문객은 2010년 초기 앱 출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입장객은 약 44%로 초기 17%에서 약 2.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2024년 기준) 현재 안드로이드 및 애플 버전 모두 운영 중이며 행사 기간 내 고객은 이벤트, 상품할인, 상품증정 등 다양한 브랜드의 쿠폰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어플리케이션 내 탑재된 전시회 안내 지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를 손쉽게 찾아 관람할 수 있어 편리하다.



베페가 진행하는 임신출산 육아관련 문화사업

지난 2007년 10월 처음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총 108회 (2019년 7월 기준) 진행된 '베페 맘스쿨'은 매회마다 국내의 임신, 출산, 육아 분야 의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며 현재까지 약 5만여 명의 임산부가 거쳐 간 교육과정이다.



베페 맘스쿨은 매월 400명의 임산부와 예비 부모를 초청해 진행하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무료 강좌이다. 베페 맘스쿨은 신생아 육아법을 비롯 임산부가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400명 모집에 매회 2500여 명 이상이 신청, 선정 인원 중 90% 이상의 참석률을 보이는 등 예비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2011년 7월, 미혼모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베페 나눔 유모차 콘서트를 시작으로,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진출 통한 국내 육아용품 수출 촉진 및 유망기업 판로 개척 지원

베페 베이비페어는 국내를 대표하는 육아전시회를 넘어, 세계 속에서도 주목받는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마다 전 세계 메이저급 육아용품 브랜드들의 상품개발자와 CEO들이 찾고 있으며, 베페는 이러한 전시회 노하우와 명성을 바탕으로 육아용품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베페는 2015년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세계 육아용품 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2014년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CBME China)'를 시작으로 2017년과 2018년 독일 쾰른 유아 및 아동용품 전시회(Kind + Jugend), 2018년과 2019년 라스베이거스 ABC 유아 박람회(ABC Kids Expo)까지 세계 3대 육아용품 전시회에 참여해 한국관을 운영하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CBME China)'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0번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6일에서 18일까지 열린 '2025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CBME China 2025)'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17개사 18부스의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또한, 2017년과 2019년 홍콩 육아용품 전시회(HK Baby Products Fair), 2019년 일본 도쿄 베이비 앤 키즈 엑스포(Baby & Kids Expo Tokyo JUNE)에 이어 2019년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출산·육아·육아용품전(IMBEX)에도 참여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도 베페는 국내 우수 육아용품 업체들의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을 펼쳐 향후 다양한 국가에서 행사를 개최해 전시 수출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베페는 육아용품 업계의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간 거래 (B2B) 서비스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에 2017년 제31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는 육아용품전시회 최초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총 8개국 41개사를 통해 약 7,800만 달러의 현장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2019년 제 35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는 전년대비 확장된 규모로



총 14개국 46개사가 참석하여 약 4,37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이후에도 42회, 44회 각 5,341만, 87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하며 꾸준한 성적을 이어오고 있다.

베페는 우수한 제품 및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외 참가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국내바이어 유통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진행될 유통상담회에도 국내 대표 유통사 MD 20여 명을 초청하여 40여 개 참가사와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해 현장 입점 계약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전시회 국고지원사업 한국관 수행 내역]

연도	전시회명(국문)	전시회명(영문)	기간	국가	지원기관
2025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	CBME China	0716-0718	중국	KOTRA
2023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	CBME China	0714-0716	중국	
2021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	CBME China	0628-0630	중국	
2020	홍콩 유아용품 전시회	Hong Kong Baby Products Fair	0106-0109	홍콩	
2019	인도네시아 출산·육아·유아용품전	IMBEX	1129-1201	인도네시아	
	라스베이거스 ABC 유아 박람회	ABC Kids Expo	1023-1025	미국	
	독일 유아 및 아동용품 전시회	Kind+Jugend	0919-0922	독일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	CBME China	0724-0726	중국	
	일본 도쿄 베이비 앤 키즈 엑스포	Baby & Kids Expo Tokyo JUNE	0626-0628	일본	
	홍콩 유아용품 전시회	Hong Kong Baby Products Fair	0107-0110	홍콩	
2018	독일 유아 및 아동용품 전시회	Kind+Jugend	0920-0923	독일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	CBME China	0725-0727	중국	
2017	독일 유아 및 아동용품 전시회	Kind+Jugend	0914-0917	독일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	CBME China	0719-0721	중국	
	홍콩 유아용품 전시회	Hong Kong Baby Products Fair	0109-0112	홍콩	
2016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	CBME China	0720-0722	중국	
2015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	CBME China	0722-0724	중국	
2014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	CBME China	0721-0725	중국	한국무역협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전하는 “대한민국 육아 트렌드”

올바른 임신·출산·육아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베페는 연 2회 관련 전시회를 개최하며, 해당 시기 국내 육아분야 현상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역할을 도맡아왔다. 최근 6년간 베페 베이비페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육아시장 현황을 정리하고, 2025년 육아 트렌드를 미리 살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도	회차 별 육아 트렌드	
2019년	35회 (2019.02)	36회 (2019.08)
	“하트 육아”	“컬러풀 베이비”
	아이의 발달과정, 취향에 주목한 예술친화적 체험형 육아스타일	유행과 대세를 벗어나 우리 아이에게 맞는 특색 있는 육아 방식을 찾으려는 트렌드 등장
2021년	39회 (2021.03)	
	“세이프 베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안해하는 부모들을 위해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	
2022년	41회 (2022. 3)	42회(2022.09)
	“강철 육아”	“육아 새로고침”
	코로나 19로 인해 혹독한 육아의 계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유아용품으로 사랑하는 내 아이를 지키는 육아 비법	모든 분야에서 뉴노멀이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보편적인 육아법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요즘 맘들의 트렌드를 반영
2023년	43회 (2023. 2)	44회 (2023. 9)
	“베페 육아랜드”	“모두의 베페”
	오랜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집콕으로 육퇴와 활동이 부족했던 맘들을 위해 무료로 보고 즐기는 체험의 장 마련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참여함으로써 육아의 가치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
2024년	45회 (2024. 2)	46회(2024. 9)
	“베페 육아스쿨”	‘베페 포레스트’
	아이 교육, 발달과정에 관심이 많은 요즘 임신, 육아맘을 위한 강연&체험 클래스 중심의 육아의 장	육아로 지친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자연주의 컨셉의 공간과 힐링 체험 및 강연 프로그램을 제공
2025년	47회 (2025. 2)	48회(2025 .8)
	“베페 유니버스 Part 1”	“베페 유니버스 Part 2”
	임신, 출산, 육아의 모든 것은 베페로 통한다는 의미로 임신부, 육아맘의 다각적인 육아 세계관 제공	임신, 출산 육아의 모든 것이 어우러진 베페 유니버스 안에서 임신부와 육아맘이 함께 성장하고 완성해나가는 여정

[끝]